

표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 만민중앙소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news.manmin.or.kr

등록번호 : 다-1840(1989. 7. 12.)  
편집처 및 발행소 : 만민중앙성결교회  
발행인 : 이재록  
인쇄인 : 김신경  
편집인 : 빈금선

서울 구로구 구로동 235-1번지 ☎02-818-7000  
e-mail : manminnews@hotmail.com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띤 만민중앙성결교회

제383호(구403호) 2009. 2. 8.(격주간)

##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연합성결신학교 제17회 졸업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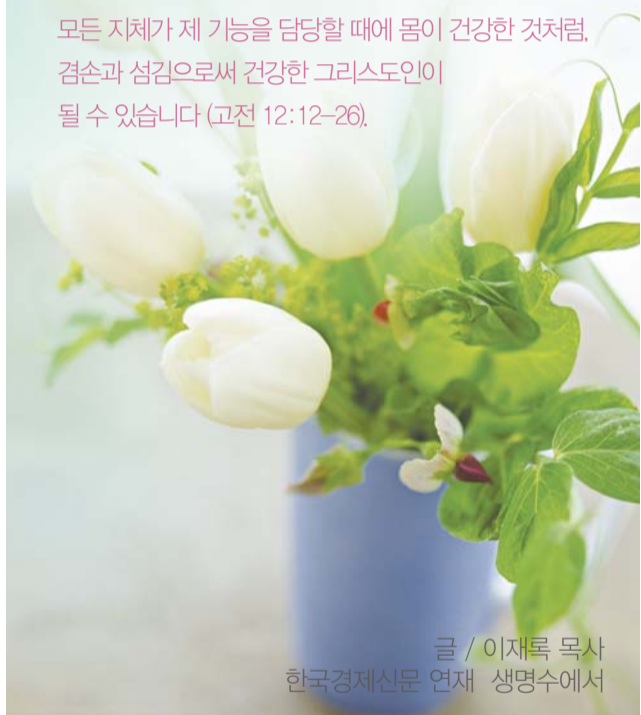


연합성결신학교 제17회 졸업식이 2월 5일 오전 11시, 우리 교회 본당에서 거행됐다. 교무처장 이중원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졸업식에서는 이사 이정호 장로의 기도 후, 이사장 이재록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영’ (요일 1:5)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일꾼은 영의 마음을 이루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영의 마음을 이루려면 “첫째, 행함으로 짓는 죄인 육체의 일(갈 5:19~21)을 버려야 하고 둘째,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 곧 육신의 일을 버려야 하며 셋째, 불같은 기도를 올려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학사 보고, 졸업장 수여, 상패 수여, 기념품 증정, 훈시, 축사, 감사,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한편, 이사장상은 안유정 교육전도사(구미)가, 학장상은 김영숙 교육전도사(서울)가 각각 수상했다. 예성연합교단 산하 신학교육기관인 연합성결신학교는 1992년 3월 25일 개교 예배를 드린 후, 성결의 오중복음(중생, 성결, 신유, 부활, 재림)을 근간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주의 종과 선교사 등 하나님의 일꾼 배출에 힘쓰고 있다.

## 건강한 그리스도인

‘겸손과 섬김’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고전12:20)는 말씀은 이를 더욱 강조합니다. 만일 눈이 자기가 최고라며 입을 무시하고, 손이 발을 무시하는 등 각 지체가 서로 무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은 한시도 평안할 수 없고, 제 구실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체는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모든 역할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역할이 다른 사람의 역할보다 낮다고 말할 수 없지요. 모든 지체가 제 기능을 담당할 때에 몸이 건강한 것처럼, 겸손과 섬김으로써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고전 12:12-26).



글 / 이재록 목사  
한국경제신문 연재 생명수에서

###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한 힘찬 전진 2009 직원 헌신예배

2월 1일 주일 저녁예배는 주의 종, 교회 상근 직원, 장로, 권사, 집사, 권찰, 에스더, 기도제물이 모여 직원 헌신예배로 드려졌다. 강사 이재록 목사는 ‘전진’ (마 25:14~30)이라는 제목으로 “2009년 축복의 해에 모두가 하나 되어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 전진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일꾼이 “첫째, 목자를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며 둘째, 각자 달란트대로 충성하되 서로 도우며 하나 되어야 하고 셋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진리로 생각하는 마음이 굳건해져야 한다”고 전했다.



### 설맞이 새터민 초청 위로회 및 주사랑선교회 창립 5주년 기념예배

주사랑선교회(새터민 모임) 주관, ‘설맞이 새터민 초청 위로회 및 주사랑선교회 창립 5주년 기념예배’가 1월 31일 오후 3시, 우리 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새터민 7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1부 예배는 박상준 목사(주사랑선교회 지도교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권능 비디오 시청 후, 신동초 목사가 ‘평안’ (요 14:27)이라는 설교로 하나님 사랑을 전했다. 장인선 집사의 사회로 진행된 2부는 예능위원회 소속 파워워십팀, 김진희 권사, 새렘국악선교단의 다채로운 공연으로 이어졌다. 여선교회 일꾼들과 공연팀은 민요와 찬양을 부르며 새터민들과 함께 기도했다. 저녁식사 후에는 선물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는 따뜻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 러시아 목회자 우리 교회 방문

예성연합성결교단 러시아 총회장인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목사와 공동 사역하는 예브게니 스미린스키 목사(마약갱생원 원장)와 알렉 디예첸코 목사(새벽별교회 담임)가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7박 8일의 일정으로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권능과 만민의 사역에 관심을 갖고 방문한 이들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만나 목회 조언을 들었다. 그 외 각종 예배 및 다니엘철야에 참석하였으며, 전라남도 무안에 위치한 무안 단물터(출 15:25) 방문과 심방 등을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에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갔다.

####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 예배	1부 · 오전 10:00	화요찬양예배 [대학·가나안·청년·비율·마리아]	오후 8:00
	2부 · 오전 11:30		
	[빛과소금선교회 오후 9:00]	수요찬양예배 [빛소금]	오후 9:00
	[요식업선교회 오후 11:00]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오후 4:00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오후 3: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금요철야예배	오후 11:00	아동주일학교 주일예배	1부 ·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 오전 11:40
새벽예배	새벽 5:00		저녁 · 오후 1:30

#### 교회 약도



- 시내버스: 5536, 5615번 (교회앞 하차)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거리 하차)
-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 (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차량팀 ☎ 02-818-7391~5)

#### 만민중앙소식을 받아보시려면

- 이 소식을 받아 보기 원하시는 분은 먼저 전화로 구독신청하신 후 우송료를 지정은행 또는 우체국에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 우 송 료 : 1년분 5,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 구독신청 : 02-851-3845, 070-8240-5609
  - 온라인 번호(예금주 : 위성영)
-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 새 예루살렘의 열두 기초석 (1)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 한째는 청옥이요 열 둘째는 자정이라” (요한계시록 21:19, 20)

## 당회장 이재록 목사

천국은 이 땅의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그 중에서도 새 예루살렘은 다른 어떤 처소보다도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에 가장 복되고 온전한 의미를 담아 아름답게 지어놓으셨습니다. 약 2천 년 전,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성경에 기록케 하셨습니다(계 21, 22장). 이는 하나님 자녀들이 새 예루살렘을 사모해 짐노(마 11:12)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피를 맞추기를 할 때 모든 조각이 제 자리를 찾아야 그림이 완성되듯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두 가지 영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열두 기초석과 그 열두 보석의 의미를 깨우치고 자신을 점검해 봄으로써 온전한 영의 마음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 1. 열두 기초석의 의미

새 예루살렘에는 기초석이 열두 개 있습니다. ‘기초석’이란 건축물의 기둥을 받쳐 주는 돌인데 ‘주춧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벽에는 열두 개의 기둥이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각 기둥을 받치는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십이 사도의 열두 이름’ (계 21:14) 곧 주님의 열두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롯 유다 대신에는 맛디아(행 1:15-26)가 기록되어 있지요. 여기서 ‘열두 제자’는 ‘성결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을 드리기까지 온전히 충성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결되어 생명 다해 온전히 충성하면 누구라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열두 기초석, 열두 지파, 열두 제자 등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를 설명할 때에는 ‘12’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9에 “낮이 열두 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이처럼 ‘낮 열두 시’는 영적으로 어둠이 조금도 없는 온전한 빛을 뜻합니다. 또한 빛은 어두움이 전혀 없으며 영원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2’는 빛의 수로서 완전함과 온전함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는 가장 복된 약속의 증표로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열두 기초석은 열두 보석으로 이뤄졌는데, 각 보석은 특별한 영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팔복’ (마 5장)과 ‘영적인 사랑’ (고전 13장),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갈 5장)가 이 안에 담겨 있고, 열두 보석의 마음을 종합하면 하나님 마음,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열두 보석이 각각 상징하는 영의 마음 결정체는 ‘완전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희생, 열정, 충성, 자비도 있어야 하며, 때론 절제도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여러 영의 마음의 결정체가 바로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 열두 기초석을 한 가지 보석으로 만들지 않고 영의 마음 각 분야를 상징하는 열두 개의 보석으로 만드셨지요. 따라서 이 보석과 같은 영의 마음을 온전히 이루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2. 첫 번째 기초석 ‘벽옥’

‘벽옥’이 상징하는 영의 마음은 ‘믿음’입니다. 육적 믿음이 전혀 없는 온전한 영적 믿음으로 모든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서 온전히 믿는 믿음이요.

영적 믿음은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어떤 건축물이든 주춧돌이 튼튼하지 못하면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믿음을 튼튼히 세우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 번 믿은 것은 끝까지 변함없이 믿기 때문에 항상 순종의 행함이 따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칭답게 말씀을 변함없이 믿고 온전한 순종의 행함을 보인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는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납니다. 하지만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한 채 세월이 흘러 급기야 자신과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고 약속을 의심치 않았지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롬 4:19, 20).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은 아브라함은 결국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보석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 찬란하게 빛을 냈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자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합니다. 독자 이삭을 통해 무수한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확고하게 믿었지요(히 11:19). 결국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고, 그 믿음의 열매는 육으로도 풍성히 맺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기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영적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기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그대로 행하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아도 온전히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믿음을 내보이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자녀들이 믿고 순종한 하나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지요.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양의 고기를 잡게 해 주셨고(눅 5:3-6),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보라’ 하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는 성전세로 널 동전을 구하게 해 주셨습니다(마 17:27). 바로 영적 믿음은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불가능한 일도 얼마든지 가능케 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 3. 두 번째 기초석 ‘남보석’

‘남보석’은 일명 사파이어라고 불리는 투명한 남색의 보석입니다. 여기에 담긴 영의 마음은 ‘곧음과 절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번 뜻을 정했으면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실 자체의 마음입니다. 또한 하나님 뜻이라면 무조건 옳다 여기는 ‘정한 마음’을 의미하지요.

남보석과 같은 진실의 빛이 마음에서부터 곧게 뻗어 나온 대표적 인물은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어긋날 때에는 결코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 굴에 던져질 것을 알았지만 한 번 정한 마음이 조금도 흔들

리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에 세 차례씩 기도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니엘의 믿음의 절개를 매우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 사자 입을 봉해 다니엘이 조금도 상하지 않게 지켜 주셨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붙잡혔습니다. 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요 하나님만이 경배 받을 분이기요 그들은 결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율법에 명사하셨기 때문에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으로라도 결코 우상에게 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질 상황에서도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살기등등한 왕의 위협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담대히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견져내실 것이며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우상에 절하지 않겠고, 왕의 명령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므로 순종하지 않겠다고 합니다(단 3:17, 18). 자신의 생명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의는 저버릴 수 없다는 이들의 마음에서 초연하면서도 곧고, 질푸른 남보석 빛깔처럼 숭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처럼 생명을 걸고 의를 지킨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음에도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을 정도로 보호해 주셨지요.

다니엘이나 세 친구 모두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은 물론 왕과 백성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두 보석 중에서 영적 믿음을 상징하는 첫 번째 기초석 ‘벽옥’과 곧음과 절개의 빛을 띠는 두 번째 기초석 ‘남보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기초석부터는 다음 호에 이어 설명하겠습니다.

보석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영의 마음을 이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보석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영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 세계 IN 만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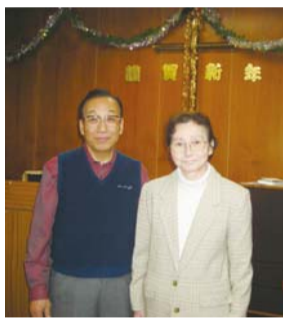
애굽 전역에 재앙이 내린 중에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았다(출 8:22, 9:26).  
이처럼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세계 속 '만민'의 얼굴을 만나보자.



## 이달은

### 녹음된 기도를 받는 순간 ...

마에다 사에다가 목사 (남, 요코하마 츠루미 복음교회)



원래부터 장 기능이 약했던 저는 지난 1월 9일, 갑작스런 복통으로 여러 차례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대장 게실염'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대장에 염증이 생겨 간장과 췌장이 매우 약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장이 파열될 뿐 아니라 배변 장애로 장이 썩었을 것이라고 했지요. 다행히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월 11일 주일 저녁, 동경 타바타 만민교회 정경태 목사님과 통화할 때 제 몸의 상태를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위해 손수건 기도(행 19:11, 12)를 해주었고, 그 순간 제 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30분 정도 지난 뒤, 정경태 목사님은 서울 만민중앙교회로 연락해 당회장님 기도를 받았더니 녹음된 기도를 전화상으로 들려주며 일어로 통역해 주었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받았지요.

약 30초쯤 지났을까. 제 눈앞에 황홀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둠의 그늘이 물러가고 봄 햇살처럼 따사롭고 밝은 빛이 제 뱃속에서 서서히 퍼져나가 몸 전체를 덮는 것이 아닙니까. 그 빛에 의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하면서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그 순간, 불안과 통증이 사라지고 치료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 12일에는 제가 직접 운전하여 병원에 갔습니다. 저를 본 병원 관계자들은 매우 놀라워했지요. 왜냐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 몸이 멀쩡했기 때문입니다.

그 날 검진 결과, 장 기능은 상당히 회복되어 있었고, 일주일 뒤인 19일 재검에 서는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 공공민주공화국

### 극렬한 불길에서 보호받다

므부사 팔리아 (부뎀보 만민성결교회)

저는 부뎀보에 살면서 고마 도시에 점포 3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월 4일 오후 5시 30분경이었습니다. 점포 직원으로부터 점포가 있는 건물에서 화재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다. 이미 건물 내에 있는 다른 여러 점포가 수만 달러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상태였지요.

유엔 평화 유지군 소속 화재진압 소방관들이 급히 출동했지만 점포가 서로 인접해 있는 데에다 문이 잠겨 있어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직원이 제게 연락했을 때 저는 현장에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군과 반군의 전투로 도로가 통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도와달라며 무릎을 꿇었고,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했기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리라 믿었지요. 그리고 현장에 갈 수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화로 직원에게

불길이 점포로 옮겨 붙지 않도록 지시하는 것 외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극렬히 번져오던 불길이 갑자기 약화되면서 저의 첫 번째 점포에 다다라 사그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소방관들과 군경들은 모두 놀라워했다고 하지요.

전기 누전으로 인해 발생한 이번 화재는 전기 배선이 하나로 이어져 있어 건물 내 모든 점포를 순식간에 태워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오직 제 점포만 보호받은 것입니다.

과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믿고 기도한 대로 권능의 손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11)  
”

## 몽골

### GCN 통해 치료된 중증 무좀

발저력 선교사 (몽골 만민교회)



4년 전 발병한 무좀이 나날이 심해져 걸어 다닐 때 몹시 불편했습니다. 심한 통증과 함께 진물과 피로 양말이 축축하게 젖을 정도였지요. 작년 11월 28일, 서울에서

는 당회장님께서 인도하는 특별 은사집회가 열렸습니다.

이곳 몽골에서 반드시 치료받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정성껏 준비했지요.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과 선교사로서 더욱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등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화상을 통해 당회장님 환자가기도

를 받았습니다.

그 뒤로는 지속적으로 무안 단물(출 15:25)을 바르면서 발을 관리했지요. 무좀은 하루가 다르게 호전되면서 지금은 매우 말끔해졌습니다.

상쾌한 마음으로 나서는 전도와 심방의 발길이 행복하기만 합니다.



기도받기 전



기도받은 후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을 이용한 동시 화상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5335-542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2동 1323-12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2018-8410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53)783-3017, 010-7112-3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1-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062)513-2455, 011-387-0263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1 ☎062)372-1002, 011-601-10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문충동 1001-2 ☎062)266-7001, 011-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9663-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6-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6-278-7712
- 평택만민농아교회 경기도 평택시 비전 2동 221-7 ☎031)665-1405, 011-358-5973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546-1537, 011-701-0244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2)841-0091, 010-7195-1099
- 사령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3)283-5004,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령동 956 ☎043)283-5004, 010-9271-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1100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원2동 626-1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3745-2119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2536-2515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8-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중앙동 95-3 ☎055)289-9522, 011-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1-214-8891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2동 47-5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구미시 오대동 742-4 ☎054)464-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3592-9522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873-6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정리 산153 ☎061)452-7443, 011-608-3037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2가 929-1 ☎063)223-9991, 018-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1동 250-3 ☎063)853-0675, 011-671-7191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71-11 ☎033)251-1144, 010-7770-2073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3731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12-2 ☎033)641-3790, 017-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연동 2307-5 ☎064)745-0675, 010-2468-2251
- 영동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0-7223-2073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88-26 ☎02)995-9951, 011-1717-1217, 011-719-2073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2)556-8517~8, 010-7223-2073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31)781-9830, 017-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1동 348-5 ☎02)489-3766, 016-776-101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2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158-5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종리동 465-4 ☎031)635-9103, 016-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3동 165-1 ☎031)840-2906, 019-251-3149

# 하나님의 축복

불경기에도 멈추지 않는

많은 사람이 십년 전 IMF 외환위기 때보다 요즘이 더 어렵다고들 한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회사가 문을 닫고,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고 있다. 고물가로 서민들의 지갑이空空 얼어붙은 지 오래다. 하나님께서는 주일 성수와 온전한 십일조 등 신앙인의 기분을 준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대신(28장). 요즘 같이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경기에도 온전한 십일조를 통해 하나님 축복을 체험한 사람들을 만나 본다.

우리 교회 재정부원, 금융인선교회 부회장, 3-1 남선교회 부회장 등으로 충성하며 믿음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조휴용 장로(50세, 14-1교구). 기업은행에 재직하는 그는 1월 22일, 차장(4급)에서 본점 여신심사부 부부장(3급)으로 승진 발령을 받았다. 작년 11월경, 그는 그동안 온전히 십일조를 드리지 못했던 것을 준비해 하나님께 드렸다. “십여 년 전에 대출금이 부담스러워 십일조 드릴 돈으로 원금부터 상환한 것이 늘 마음에 짊어졌던 저는 당회장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쭙았습니다. 당회장님

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십일조를 먼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하시며 깨우쳐 주셨지요.” 그 뒤 12월 경, 그는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것은 더 잘 되게 해주시고, 승진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뜻밖의 기도를 받았다. 올해 1월 13일,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그에게 응답이 찾아왔다. “조휴용 차장님! 승진 소식입니다. 축하합니다.” 그가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하고자 힘쓰니 깨우쳐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을 마음 깊이 되새겨 보는 사건이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시고자 할 때 승진의 축복까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작은 중화요리 음식점(만리장성)을 경영하는 유옥선 집사(52세, 중국 1교구). 그녀는 1992년, 중국에서 남편을 여읜 슬픔에 마음을 잡지 못해 삶의 의욕을 잃고 방황하며 귀신의 방해까지 받았었다. 하지만 2000년 전도받아 화상을 통해 ‘2002 이재록 목사 초청 인도연합대성회’를 시청하던 중 어둠의 세력이 떠나고 건강해졌다.

이렇듯 성령 충만한 그녀이지만, 그동안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못했다. 남편의 믿음 분량에 맞추다 보니 십일조는 생각나는 대로 적당히 드리고 오전 예배만 참석하고 가게를 열어야 했다. 하지만 장사는 갈수록 안 되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남편의 믿음과 가게를 위해 금식기도를 여러 번 했다.

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나타났다. 그 다음 날로 손님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그날그날 수입을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손님이 이전에는 하루 30명 정도였는데 70여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지금도 그 축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매우 놀라면서도 연신 즐거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만리장성’에 부는 축복의 바람

그녀는 2003년 5월, 한국에 왔다. 여러 식당을 옮겨 다니며 일하던 어느 날, 주방에서 찬송 테이프를 들으며 열심히 일하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이것이 부부의 연이 되었고, 2008년 5월에 중식당 ‘만리장성’을 개업했다. 자장면 한 그릇에도 정성을 쏟으며 손님들에게 웃는 낯으로 대하는 그녀는 가게에 GCN(세계 기독교방송 네트워크) 방송 수신 장비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성결 복음을 전했다.

작년 12월, 당회장님의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에 대한 설교가 주일 대예배 때 증거 되었다. “설교 듣고 많은 걸 깨달았어요. 십일조는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더 믿음을 못 내보인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남편에게 ‘우리 한번 십일조를 온전히 드리고 축복이 임하는지 시험해 봅시다’ 했더니 남편도 흔쾌히 동의하더군요.”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말 3:10)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까지 하시며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십일조의 축복. 이것을 체험한 부부는 자녀에게 축복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며 믿음이 더했다.

2009년 1월 1일부터 부부는 총수입에서 십일조를 떼어 놓았다. 열매

토털 인테리어를 하는 김정환 성도(52세, 31교구). 그는 많은 일감에 파묻혀 바쁘게 일해도 손익을 계산해 보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다. 열심히 일해도 왜 늘 생활은 빠듯한지 의문이었다.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사고를 낸 일도 없고 취미생활에 돈을 쓰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러다 ‘혹시 십일조를 안 해서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하는 생각에까지 닿았다. ‘십일조 생활을 해야 축복받는다’고 교구장님께 여러 차례 들어 왔던 터. 교회 나온 지 십년이 지나도록 십일조는 못 하고 감사헌금으로 위안을 삼던 그

였다. 해야겠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시간은 흘러갔고, 십일조는 그의 기도제목이 되었다. 그 무렵, 주일 대예배 설교에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의 말씀이 증거 된 것이다. 그것은 그에게 우연이 아닌 하나님 은혜였다. 설교에 큰 감명을 받은 그는 십일조에 대한 확신을 갖고, 2008년 12월 둘째 주부터 십일조를 매주 드렸다. 그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10월 중순에 끝난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가도 수금이 제대로 안 됐죠. 그런데 12월 31일, 그곳에서 남은 공사대금 3,500만

원이 한꺼번에 들어온 거예요. 십일조를 3주째 드린 주간이었죠. 큰 체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했지요. 무엇보다 예전에는 느끼지 못한 평안함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는 물질의 축복뿐 아니라 웃음까지 되찾았다. 수확을 거두는 사람은 농부이지만 심을 씨앗도, 토양과 물과 햇빛과 비,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소산이 하나님 것이지만, 오히려 10의 9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사랑을 그도 이제 는 알았으리라.



“신앙생활 10년 만에 창 평안을 얻었습니다”